

지 상 범 석

전환할 책임자는 '자신'

“마음이 어리석어 어두운 자는 마음으로 지혜를 밝혀야 합니다”

둘째 의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의지적인 삶이란 일상의 노예가 되어 그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연적인 삶이 아닙니다.

가는 초인적인 삶입니다. 부처님은 (원각경)에서 '선남자야 온갖 중생이 본래부터 지금까지 갖가지로 미혹됨은 길을 잃은 사람이 사방을 혼돈하는 것과 같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한 수행자는 집착하는 것 없고 항상 마음을 억제하여 생각하며, 내것이라고 잡히는 것은 내버리고, 세상 속을 걸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라는 실체를 지닌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존재는 상호의존성에 있으므로 너와 나는 대립갈 등의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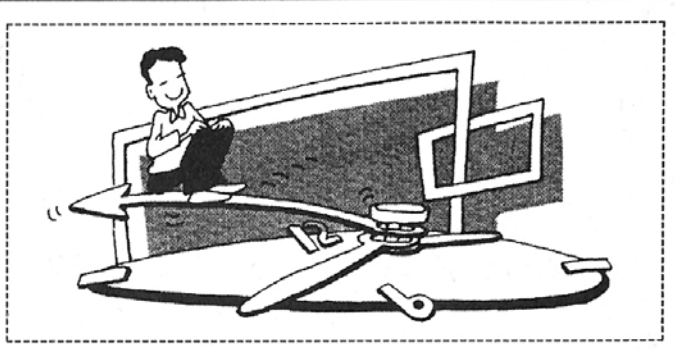
자아에 대한 무자각·무반성한 삶은 죽은 목숨 '내것' 집착 버릴때 대립소멸 '공존의 자유' 누리

미래를 지향하는 힘이 됩니다. 특히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에서 인간의 주체를 의지라고 하였듯이, 인간 본래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참되게 자유로운 의지를 실현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두어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미혹하지 않으며 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순리에 따르는 것이니 무슨 깨달인가. 세간의 일체의 생을 버리게 알고 보면 세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것이요, 세간의 일체의 멸함을 참다이 알고 보면 '세간이 있습니다'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몸은 바다와 같아 오욕 받아들인다 이 몸은 험한 길 같아 선업을 쉽게 잃는다 이 몸은 시들은 꽃과 같아 이내 늙는다 이 몸은 폐궁과 같아 죽음이 사는 집이다

와 너라는 주객관계는 영원히 분리되고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예컨대 일찍 서양의 합리주의는 매사를 이원론으로 대립시켜 왔으며, 이에 동양은 본질적으로 일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4가지 상호작용의 지배를 받는다. 강력과 약력, 전자기력과 중력이다. 그 중에 중력은 가장 약한 힘이지만 먼 곳까지 그 힘이 미칠 수 있다.

모든 물체 중력에 의해 상호작용하듯 우주존재 끝없는 삼세 연기그물로 연관

이러한 상호연관성은 물체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시공간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물이 든 양동이를 회전시키면 물의 표면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 불교 신문 구독신청안내

보살사상 경구선집. 출가자에게는 수행의 지침! 재가자에게는 삶의 지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역작!

大韓國人 安重根 (義士). 옥중 안의사의 간수였던 일본 헌병이 존경과 참회로 바라본 인간 안중근. 약사암의 -하스님이 번역하여 국내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 놀라운 장면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 無生心)